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가수 J 활동 재개

싱글음반 '드림캐처' 발표

가수 제이(J · 32)가 디지털 싱글음반 '드림캐처(Dream catcher)'를 3일 발표했다.

소속사는 올해로 데뷔 11년이 된 제이가 10월 정규음반 발매에 앞서 싱글음반으로 활동을 먼저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작곡가팀 매드솔차일드가 프로듀싱한 이번 음반에는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과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댄스 음악 '드림(Dream)'과 알렉스가 피처링한 발라드곡 '사랑한다는 말'이 수록됐다.

그는 현재 TBS 영어라디오 'K-Popular with J'의 DJ로도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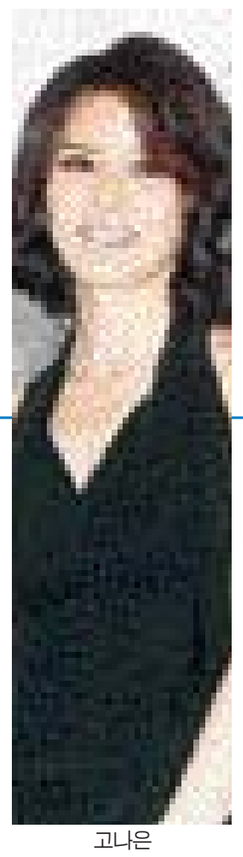
보석처럼 빛나는 착한 드라마 온다

마이클 블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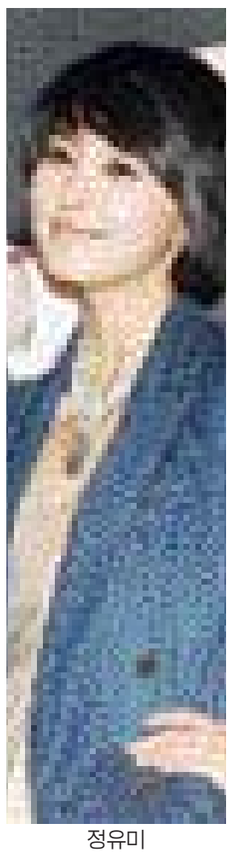
소이현

주말드라마 오늘부터 방영

이태곤


고나은

이현진


정유미

비취, 루비, 산호, 호박 등 4가지 보석같은 남매와 그 가족들이 빚어내는 비빔밥 같은 홈 드라마.

작품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 임성한 작가의 MBC 새 주말드라마 '보석비빔밥'(극본 임성한, 연출 백호민)이 5일 밤 9시45분에 첫 방송된다.

지난 1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제작진은 '보석비빔밥'이 전형적인 홈 드라마이지만 단순하고 평범한 이야기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특히 기존의 가족 드라마에서 집안의 어른들이 자식들의 성장과 결혼 등을 지켜보고 조언해준다면 이번 드라마는 오히려 어른 같은 자식이 철없는 부모와 함께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보석비빔밥'에는 한량 기질이 다분한 아빠 궁상식(한진희 분)과 허영심 가득한 사고뭉치 엄마 피혜자(한혜숙 분), 돈많은 남자를 만나 '인생역전'할 것을 꿈꾸는 큰딸 비취(고나은 분), 가난탈출이 인생목표인 둘째딸 루비(소이현 분), 외교관을 꿈꾸는 셋째 산호(이현진 분), '싸움짱'인 막내 호박(이일민 분) 등이 나온다.

이들의 집에는 호텔 재벌 2세이지만 아버지 권유로 인생경험을 위해 1년 동안 집을 나온 서영국(이태곤 분)과 스님이 되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카일(마이클 블렁크 분)이 세들어 살고 있다.

'하늘이시여' 이후 또 임성한 작가의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이태곤은 "작가님이 은근히 드라마에서 절 많이 벗기시더라.(웃음) 작가님이 영국이가 좀 날렵한 이미지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식이요법 등으로 4kg을 뺐다"며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이현은 "배역을 위해 웨이브 섹시 댄스를 배웠는데 워낙에 제가 몸이 뻣뻣해서…(웃음) 임성한 작가님의 드라마에 캐스팅됐다고 해서 마냥 좋기만 했는데 이후 기사들이 장서희, 윤정희 선배님을 거론하며 나를 언급해 부담감과 압박감이 크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5년 전에 한국에 왔다는 블렁크는 "아는 형님 소개로 처음 연기하게 됐다. 어릴 때부터 한국인 새엄마로부터 한국어를 배운 역할이어서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 연기뿐 아니라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자연스러운 한국어 솜씨를 자랑했다.

제작을 맡은 김정호 MBC 프로덕션 부장은 "임 작가가 전작인 '하늘이시여' 등 강한 드라마로 이야기를 이끌고 갔다면 이번엔 '보고 또 보고' 같은 전형적인 홈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백호민 PD는 "살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괴롭히는 대상이 가족이지만 반면에 힘들 때 찾는 곳도 바로 가족"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서구화되고 급격히 변하고 있다지만 가족의 가치만큼은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가족 중심의 이야기를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방신기 유노윤호 첫 정극 연기 도전

미니시리즈 '맨땅에 헤딩'서 주연

동방신기 유노윤호〈사진〉가 '혼' 후속으로 9일 첫선을 보이는 '맨땅에 헤딩'에서 주인공 차봉군 역을 맡아 처음으로 정극 연기에 도전한다.

동방신기에서는 '유노윤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그는 연기자로서는 본명인 정윤호를 크레디트에 올린다.

그는 "무엇보다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며 "솔직히 내가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맨땅에 헤딩'이다. 살다 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있는데 늘 앞을 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차봉군은 3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는 열혈 젊은이다. 그는 "원래 축구를 좋아하는데 드라마 소재가 축구라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며 "봉군이는 저돌적이고 다혈질적이다. 그런 봉군이가 꿈을 향해 돌진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수 데뷔 5년째인 그는 SBS TV '일요일이 좋다'의 '반전드라마'와 자신의 소속사가 팬들을 위해 제작한 극장용 TV드라마 등을 통해 연기를 해봤지만, 미니시리즈 드라마의 주연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연기가 좋냐, 가수가 좋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는데 연기는 새롭게 하는 것이라 모든 것이 새롭고 좋다. 연기를 하면서 배역과 함께 성장해 가는 느낌이 든다"며 "내가 연기를 통해 얻고 내뿜는 에너지가 보시는 분들께 전달되는 것 같아 너무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방신기 사태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은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동방신기 멤버 5명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은 지난 7월31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다른 두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 가처분 신청에서 빠졌다.

유노윤호는 "드라마 촬영을 시작한 후로는 멤버들과는 밤에 숙소에서만 겨우 만나는데 잘하라고 격려해 준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준다"고 말했다.

그는 동방신기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며 "요즘 악성 루머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믿지 않기를 바란다. 잘 해결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